

八公山 道立 公園에 國內 最長의

스카이라인 리프터 登場

自然保存과 合理的 利用의 宿題가 풀릴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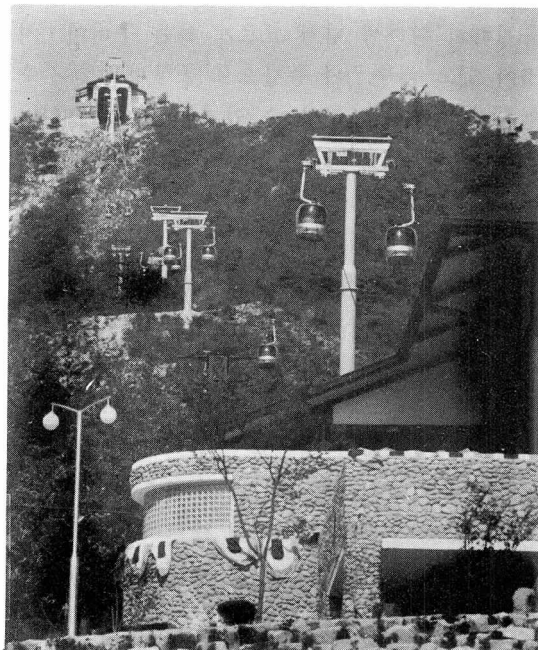
國內 自然公園으로선 最初로 登場된 「곤도 시스템」인 八公山道立公園의 「스카이라인 리프터」가 지난 10월 18일 着工 1年만에 開通되어 大邱地域 一圓의 觀光客들의 關心은 勿論, 學界에서 論議의 對象이 되어온 「保存과 利用의 調和」生態系(ECO-SYSTEM) 變化 등 研究 對象으로서의 價値가 높다.

지난 10월 18日 八公山道立園의 「八公山스카이라인」本 駅舍에서 있는 「리프터」

開通式에는 李相淵 大邱直轄市長, 李致浩 議員(民正黨大邱慶北道委員長) 등 機關長, 有志 및 市民 1 千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株)八公스카이라인 李相杰 社長의 施設 說明에 이어 開通테이프를 끊고 記念植樹와 開通試乘의 順序로 市民의 搭乘이 始作되었다.

國內 自然公園에 처음으로 架設된 「곤도라 시스템」인 八公스카이라인 리프터는 프랑스의 포마사가 竣工한 것으로 「알프스」의 「몽블랑」 피렌체의 「샤모니」, 美國의 「미시시피」에 設置된 것과 같은 타입이며, 快適한 乘車感과 通常 5倍 以上의 安全度를 자랑하고 있다.

觀光慰樂施設이 貧弱했던 大邱市의 새로운 觀光 名所로 登場한 八公道立公園리프터는 達丘伐의 자랑인 八公山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眺望할 수 있을 뿐아니라 老弱者와 어린이 들에게 道立公園의 景觀을 한눈에 接할 수 있게 해 주고 自然을 사랑하는 마음을 스스로 움트게 해 주고 있다고 當務者들은 말하고 있는데 長



「곤도라시스템」인 스카이라인 리프터의 開通光景

期的 眼目으로 보아 自然保護의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고 壯談하고있다. 每 35秒마다 1台씩 出發하고 25台의 6人乘搬機가 순환하는 이 「스카이라인·리프터」는 國內 最長距離인 片道 1.2km의 施設인데 出發起點에서 頂上까지는 4~5分間이 所要된다. 山頂으로 오르면 大邱市의 全景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며, 八公山 主峰인 비로봉(1,192m)을 비롯하여 東峰(1,155m), 西峰(1,041m), 桐華寺(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본사), 念佛庵 등 奇岩絶壁과 樹林 등 壯觀을 마음껏 滿喫할 수 있다.

이날 처음으로搭乘한 一團의 孝道觀光老人들은 「죽을 때까지 못 와볼 줄 알았던 八公山 꼭대기까지 子息들의 권유로 와보니 기쁘기 限이 없고 값싼 飛行機를 타본것 같아 흐뭇하다」고 感嘆하고 있었다.

老弱者나 肢體不自由者에게는 더없는 부러움이 되고 있는 八公스카이라인 리프터開通은 單純한 觀光客의 運搬手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불防止” 遭難事故의 緊急輸送과 自然

을 汚染시키는 各種 폐기물의 運搬手段으로도 活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더욱 關心事가 되고 있다.

大邱市 綜合開發計劃의 周辺 開發을 促進하는 契機가 된다는 視覺에서 大邱市 当局의 要請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最長인 八公스카이라인의 合理的인 運用은 論議의 対象이 되어 온 「自然保存과 合理的인 開發利用」의 山資料를 우리에게 提供해 줄 것으로 믿어진다. (珠)



〈가까이서 본 리프터〉

〈八公山道立公園 周辺과 桐華寺〉

大邱에서 東北쪽으로 22km 地点에 있는 八公山은 해발 1,192m의 最高峰인 昆盧峰을 中心으로 양쪽에 東峰과 西峰을 거느리고 東西로 길게 뻗고 있다. 北으로 시루峰, 東南쪽으론 念佛峰, 印峰, 露積峰, 冠峰 등이 이루어지고 西로는 톱날바위, 把溪峰을 넘어 멀리 架山에 이른다. 八公山道立公園 地域은 南쪽의 達城郡 公山면 (一部 大邱市 編入) 西쪽의 漆谷郡 架山면, 東明면, 東쪽의 永川郡 淸通면, 新寧면, 北쪽의 軍威郡 岳溪면, 山城면, 善山郡 長川면과 慶山郡 瓦村면 등 1市6個郡 9個面の 1部 地域에 걸치는 124km에 달한다. 이 廣大한 地域속에 往年의 31대 本山의 하나이며, 現代 한불교조계종 第9校区本寺인 桐華寺를 비롯 銀海寺, 把溪寺, 符仁寺, 慶州石窟岩보다 앞섰다는 「부계」의 第2石窟岩, 松林寺, 冠岩寺와 昆盧, 養眞, 內院, 念佛, 居祖, 百興, 雲溪, 妙峰, 中巖庵 등 數10個의 寺刹과 암자가 있다.

桐華寺의 寺蹟誌에는 新羅 第21代 炤知王 15년 (493) 極達和尚이 創建하여 瑜伽寺라 부르다가 新羅 第42代 興德王 7년 (832)에 心地王師가 再創하는데 冬節인데도 절주위에 오동나무꽃이 만발하고 있어 桐華寺로 改名했다 한다. 그후 新羅, 高麗, 朝鮮英祖에 이르기까지 靈祖禪師, 普照國師, 弘眞大師, 四溟大師, 尚崇大師, 冠虛, 雲丘, 洛濱, 晴月등이 8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한다.